

2.

# 한인회보

## 2003 한인 이민 역사 100주년



시애틀-워싱턴주한인회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 당신의 미래를 위한 쿠투 Wilshire State Bank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내 가족같이...  
당신의 비즈니스에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부사장 : 지미 김**  
Vice President : Jimmy Jin Yo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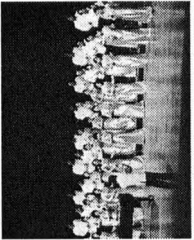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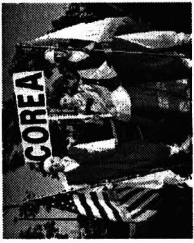
**Seattle Office**  
Tel : 206-223-8176  
Fax : 206-223-8096  
Cell : 206-255-9182  
10700 Meridian Ave. #502  
Seattle, Washington 98133



**월셔은행**  
WILSHIRE STATE BANK, PLP Lender  
www.wilshirebank.com

## 2003년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며...





## 목차

# 목차

1	한국이민의 날 선포식
2	/ 목차
3	인사말 / 홍승주 회장
4	축사 / 김 재국 총영사
5	축사 / 주지사
6	축사 / Seattle Mayer
7	축사 / 신호범 상원의원
8	역대회장단 / 임원구성도
10	2003년 한인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
14	사진 / 함명호씨 작
16	특별기사 /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20	학술심포지움
22	칼럼 / 장용석
24	김승예의 용자
26	부동산 지식
27	이덕남씨의 골프 이야기
28	사진으로 보는 2003년 임원활동 화보
42	한인회 회비 납부자
44	수재의연금기부자
45	편집 후기

## 인사말

### 미 이민 100주년 한인 회보 글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가정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미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로 1903년 1월 13일로 우리 이민 선조들이 처음 이땅에 뿌리를 내린 하와이를 기점으로 많은 행사를 동포 여러분의 협조와 사랑 받으면서 킹 카운티 한국의 날 선포, 워싱턴주 한국의 날 선포, 퍼레이드 참석, 차세대 한국인의 정체성 등 커다란 행사를 무리 없이 꾸려 나갈 수 있도록 2003년도 임원진과 이사장을 위시하여 온 한인회 소속된 식구들이 일심단결하여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버리고 오직 100주년 사업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낌없이 헌신해주셨습니다.

지난 일년을 회고해 볼 때 할 일은 많고 미 주류사회에 그 몫을 다하는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한인회 사업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이사, 단체장, 특별 헌금해 주신분께 동포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인회는 동포들의 후원없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소 행사 때마다 1.5세 2세를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언젠가는 차세대가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임원 및 이사회 모두가 동포여러분의 가정위에 평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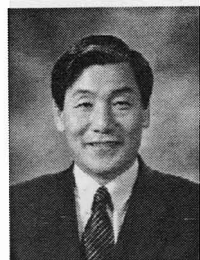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홍승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 축사



주 시애틀 총영사

김재국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의 2003년도 회보 발간을 축하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애틀한인회는 서북미 지역 우리 동포사회의 중심 단체로서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화합단결에 전력하는 가운데 특히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의 미래 지향적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워싱턴대학의 관련 학자들과 함께 학술 심포지움을 공동개최 함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조성과 함께 동포사회 내 세대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국의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돕기 위한 동포들의 성금모금에 앞장 섬으로서 동포애를 결집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워싱턴 주 한인동포들은 이미 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주류사회로부터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서북미간 협력 관계증진에도 여러모로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한인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동포사회 및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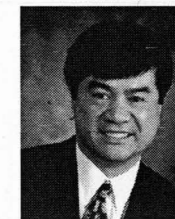
우리정부는 이러한 재외동포사회의 자조활동을 격려하며 능력껏 지원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애틀 한인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동포 여러분의 건승과 시애틀 한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12월

### 축사

GARY LOCKE  
Governor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P.O. Box 40002 • Olympia, Washington 98504-0002 • (360) 753-6780 • www.governor.wa.gov

### Greetings from the Governor December 6, 2003

As Governor of the state of Washington, I am pleased to welcome all of those attending the 2003 Korean A-Ri-Rang Night, hosted by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 commend this outstanding organization for promoting greater recognition of the important contributions that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Washington State, and for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this rich and beautiful culture.

I especially acknowledge the leaders being honored this evening. They richly deserve this special recognition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civic and political life of our state and for elevating the concern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evening and continued success in the coming year.

Sincerely,

Gary Locke  
Governor

축사

City of Seattle • Office of the Mayor

# GREETINGS

December 6, 2003



SEATTLEMAYER

Greetings!

As Mayor of Seattle,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annual dinner of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has served as a valuable resourc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many years. The association has done outstanding work advocating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is dinner is wonderful way to recognize and acknowledge outstanding leader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night's celebration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made to the rich mosaic of diverse cultures and traditions in Seattle.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very successful dinner.

Sincer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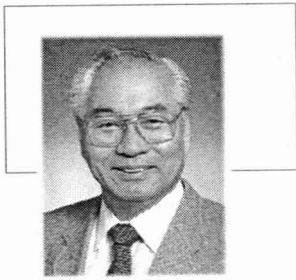
GREG NICKELS  
Mayor of Seattle

축사



404 John A. Cherberg Building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Olympia Ph: (360) 786-7640  
FAX: (360) 786-7450

Washington State Senate  
Senator Paul H. Shin, Ph.D  
21st Legislative District



October 30, 2003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8

Dear Friends,

As we commemorate the Centennial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t is only fitting to look forward to the next one hundred years. We have accomplished much in the previous century and have much to be proud of. Washington is the home to over 100,000 Korean Americans who have succeeded in business and government. We are an integral part of the community at large, but we maintain our distinct cultural heritage. We have been sewn into the tapestry that is American life, but we cannot rest on our laurels, we must continue to work.

As each generation of immigrants has a different perspective on what being an immigrant means, the children of immigrants and those who were adopted at a young age and brought to a new land have different perspectives. It is highly important that each generation respect the challenges facing each other. Those of the first generation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challenges than those of the second. In addition, those who were born in one country but raised in another, the 1 1/2 generation, have challenges and issues not faced by either the first or the second. We must continue our quest to become a greater part of American way of life by integrating into the mainstream of American culture. Each Korean American, whether of the first, second, or 1 1/2 generation has a motherland and a fatherland. Each of us struggles to decide whom to bear allegiance to. We must all be mindful that the decision of one person is no more correct or incorrect than the decision of another, and we must respect the choices made.

Our world is in a tenuous geopolitical situation. As a community, we are confronted with troubling events on a daily basis. In particular,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draw our attention. It is fitting for all Koreans to unite behind the cause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a peaceful world. Given our successes, we can all spare time and effort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I wish to congratulate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its leadership for your indefatigable service to the cause of Korean Americans and our common future. The world we inhabit today belongs to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If we provide them a way to retain their distinct culture while also developing their love and allegiance to their adopted homeland, we have succeeded in our goals.

Sincerely,

Paul H. Shin  
Washington State Senator  
21st Legislative District

## 역대회장단 및 임원구성도

###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역대회장

- 1대 1968년 이창희
- 2대 1969년 이선복
- 3대 1970년 전계상
- 4대 1971년 이현기
- 5대 1972년 이현기
- 6대 1973년 한만섭
- 7대 1974년 구범희
- 8대 1975년 신호범
- 9대 1976년 김성길
- 10대 1977년 김형진
- 11대 1978년 김형진
- 12대 1979년 조성욱
- 13대 1980년 정철식
- 14대 1981년 강동연
- 15대 1982년 엄명보
- 16대 1983년 신호범
- 17대 1984년 오계희
- 18대 1985년 오준걸
- 19대 1986년 박태호
- 20대 1987년 윤광남
- 21대 1988년 최주찬
- 22대 1989년 한원섭
- 23대 1990년 장동식
- 24대 1991년 곽중세
- 25대 1991년 한상국
- 26대 1992년 이광술
- 27대 1993년 윤상민
- 28대 1994년 김석민
- 29대 1995년 민학균
- 30대 1996년 민학균
- 31대 1997년 장수강
- 32대 1998년 김재영
- 33대 1999년 강석동
- 34대 2000년 유철웅
- 35대 2001년 이영조
- 36대 2002년 김준배
- 37대 2003년 홍승주

### 2003년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임원 명단

회 장: 홍승주  
 수석부회장: 민영기 부회장: 장용석  
 사무총장: 김승애 사무장: 김진희 간 사: 조수현  
 재무부장: 주대철 문화부장: 이승주  
 취재부장: 함영호 기획부장: 방석문  
 체육부장: 이덕남 청년부장: 김수영  
 홍보부장: 도호중

### 2003년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이사명단

이 사 장: 임광희  
 부이사장: 장진식 총무이사: 김기현  
 이 사:  
 강성수, 권경락, 권성욱, 김상민, 김성배, 김수영, 김승애, 김익진,  
 김준배, 문성민, 민영기, 방석문, 박준우, 오영석, 유대림, 윤부원,  
 윤주남, 이병구, 윤봉열, 이승주, 이재홍, 이진경, 이찬주, 이창래, 이학보,  
 임광상, 장성완, 장용석, 장태수, 전철홍, 정문호, 정서원, 조경희, 조안나 정,  
 주대철, 함영호, 함재명, 홍승주, 홍 찬

자문위원  
 강동연, 강석동, 강희열, 곽중세, 김석민, 민학균, 박태호, 신호범, 오계희,  
 오준걸, 유철웅, 윤광남, 이광술, 이영조, 조성욱, 한상국, 한원섭

자문이사  
 강세홍, 강영선, 고봉식, 권 정, 김교선, 김기홍, 김병학, 김양근, 김순아,  
 김영민, 김영조, 김정부, 김 준, 김청작, 김현호, 김현길, 김홍열, 동원모,  
 마혜화, 문성민, 박영민, 박윤모, 박재동, 박태수, 송연식, 송태호, 심상연,  
 송춘우, 안경숙, 안형준, 양용관, 오병세, 온상용, 우시홍, 유의진, 이거영,  
 이동립, 이병준, 이병호, 이승식, 이종남, 이종식, 이종찬, 이종현, 이필영,  
 이태문, 이현숙, 이희갑, 임영철, 장태근, 전철호, 정금식, 정상용, 조민호,  
 주봉익, 지은정, 최창만, 한광희, 허남일, 홍낙순, 홍종태, 홍천해

감 사: 박우석, 박성수

**DeBON**

내가 선택하기 특별해요. 드봉렌게

특별웨딩: 양복이 열리는 아름다운 첫출발, 렌게가 진정한 축복의 결혼을 연출해 드리며, 독특하고 세련된 헤어디자인과 한국인에게 꼭 맞는 최고의 품질 드봉 화장품을 갖추고 여러분의 피아미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헤어디자인

스킨케어

웨딩드레스

시애틀 본점  
**드봉 렌게**  
 (206)364-8322  
 14703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타코마 지점  
**드봉 확장품**  
 (253)582-3698  
 8705 S Tacoma Way Lake Wood, WA 98499  
 솔로미스 카우 사쿠나 빌

헤드럴웨이 우리화장품 (253)629-5140    켄트 모닝글로리 (425)251-8111    린우드 팔도비데오 (425)742-4868    에드몬즈 바르손 (425)672-2636  
 달뷰 Salon de Vogue (425)746-9836    린우드 펜시 (425)741-7316    시애틀 모닝글로리 (206)365-2585    벨뷰 모닝글로리 (425)641-9667

# 2003 한인회 활동 사항 및 업무보고 1/4분기



## 2월

- 한국통합학교 구정 행사 참석
- 제 4회 타코마 한인회 주최 교민의 밤 행사 참석
- Radio 한국 한인회 방 대담
- 아태 문화회 참석 평통 주최 타코마 동 행사 참석
- 한인회 서북미 총연합회 회의 참석(신성) KOAM TV 대담
- Bertrava Hill MG, Troy Meeting
- 2003년도 제11회 장기 이사회 개최
- 언론인 초청의 밤 개최(한인회 회관)
- 서북미 한인회 연합회 회의 참석(S.F.)
- 6.25 참전 용사 회의 참석(한인회 회관)
- 세탁협회 2003년도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한인회 회관)
- 상공회의소 2003년도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한인회 회관)
- 생활상담소 기금 모금행사 참석(Hilton Hotel)
-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서울)
- 경향 전문위원 모임(한인회 회관)
- 인원회 개최(연화장로 교회)

## 1월

- Hawaii 이민 100주년 기념식 참석
- King county 한국의 날 선포식 참석
- PBS TV Jeff Gentrys MDC TV 박영민
- Federal Way 시의원 훈장수여식 참석(총영사관)
- 제 1회 인원회 개최
- 이민 100주년 한국의 날 선포식 참석(Olympa 주청사) 인원회 개최
- 이민 100주년 한국의 날 선포식 참석
- (Federal Way City) 회의실) 경향 전문위원회 참석 (한인회관)
- 평통 민학교회장 표창 수여식 참석 (총영사관)
- max kee 장례식 참석
- 2003년도 제 37대 회장단 이사장단 이취임식 거행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수원회 회의 참석
- 이민 100주년 한국의 날 선포식 참석(Shoreline City)

## 3월

- 3.1절 기념식 거행(장소:연화장로 교회)
- 문명록 총영사 송별회(장소:Red Lion Hotel)
- 기독 실업인 회의 참석 체육회 2003년도 정기 총회 참석
- 정관 개정 위원회 회의
- 제 4회 인원회 개최
- 전신에 노동자관보 환영회 장소:Federal Way King County 수영장
- NPCA 담당 직원 내방 직원 동태 파악 및 간담회
- 평신 탈출 개강(수강생 없음)
- 김재국 총영사 환영회(타코마 한인회 외 공동주관)
- 이민 100주년 문화 학술 준비 모임(한인회 회관)
- 한인회 미주 총연합회 회의참석 (장소:Red Lion)
- 제 5회 인원회 개최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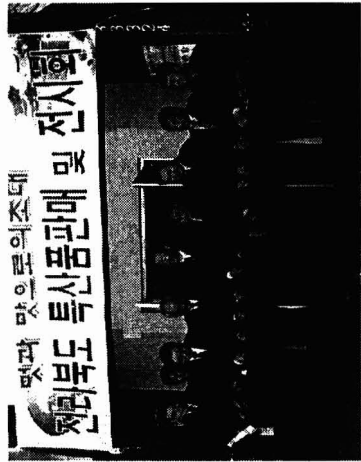
- 조수미 공연 예비모임 (Seattle, Tacoma 연석) 하나비
- 셋별문화원 100주년 행사 준비모임(회관 회의실)
- 제 8회 인원회 개최 (6.25 50주년 준비)
- 장한 어머니상 및 사회봉사상 수여식 참석
- 한인회 회장배 정갈 축구대회 참석
- God 협회 주최 golf 대회 참석
- 세탁협회 주최 golf 대회 참석
- 세애틀 한인회 회의 참석(신라)
- Colin Min Kick off party 참석
- 서북미 한인학교협의회 회의참석 (Red Lion)
- Snohomish 노인회 방문
- 다민족 문화행사 참석(Seattle Center)
- 여성부동산협회 주최 golf 대회 참석
- computer 강습(KSEA 주최)
- 6.25 참전 기념탑 제막식 참석 (Bellevue)
- 이민 100주년 사진전 참석(Asian Art Museum)
- 제 9회 인원회 개최
- (전북 특신물 전시 관 계 및 7월 1일 100주년기념 열린음악회 공연 준비)
- Radio Hankook 인터뷰
- (Bellevue) 6.25 참전용사탑 제막식 관 계 및 한인회 주최 golf 대회 관계)

## 6월

- 체 육회 후원의 밤 및 정선민 선수 환영 행사 참석
- 종교인 대표자 초청 간담회 참석(총영사 관지)
- 제 10회 인원회 개최(전북 특신물 전시회 준비)
- 한인회 회관 기금모금 golf 대회 개최(Northshore golf club)
- KAPS 창립 기념행사 참석(Bellevue club hotel)
- Radio Hankook 인터뷰
- 제11회 인원회 개최
- 단체장 회의 참석
- 제12회 인원회 개최
- 제13회 인원회 개최
- Radio Hankook 인터뷰 -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 2003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 PRIMERIA 경제분석, 세미나 참석, 총연 회장후보 정책 발표회 참석
- Seattle 경향 전문위원 모임(한인회 회관)
- 전북 특신물 전시회 관계자 환영회
- 전북 특신물 전시회 (Federal Way) 출타은 프라자)
- 이민 100주년 및 수교 50주년기념행사 준비모임 (셋별) 참석

## 4월

- 단체장 회의 참석
- 100주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
- 제 6회 인원회 개최 (Seafair 준비)
- 신호범 박사 시극세미나 참석 (타코마 새생명 교회)
- 해병대 창설 54주년 기념행사 참석(Federal Way 대한부인회)
- 영사관주최 문화홍보에 따른 간담회 참석(신라)
- 영사관주최 문화홍보에 따른 간담회 참석(신라)
- 이민 100주년 학술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
- 100주년기념 학술대회 참석
- 대한체육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제 7회 인원회 개최(전북 특신물 전시회 관계)
- Seattle 경향 전문위원 모임 (회관 회의실)
- 셋별문화원 100주년 행사 준비 모임(회관 회의실)
- 미주총연 문제 관계 회의 참석
- 문화관광부 국립합창단 공연에 따른 회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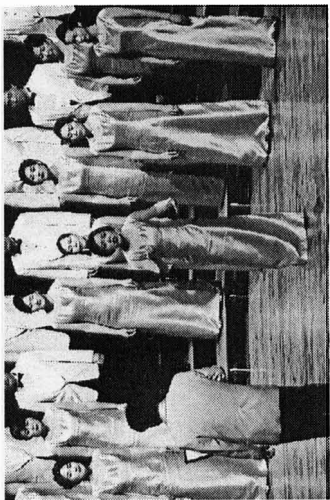


# 2003 한인회 활동 사항 및 업무보고 2/4분기

# 2003 한인회 활동 사항 및 업무보고 4/4분기

## 2003 한인회 활동 사항 및 업무보고 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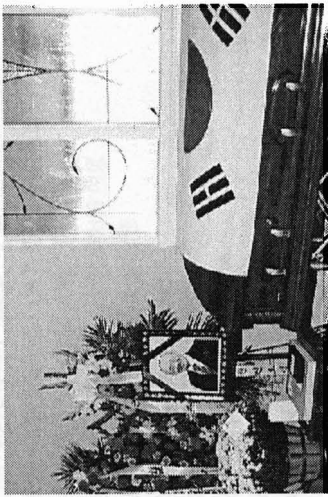
### 7월



이민 100주년 기념 국립합창단 공연(LW 미니홀)  
 제 14회 임원회 개최  
 한미자유수호연합회 결성(본회관)  
 임원 이사 및 사회단체장 연석회의(SeaFair 준비)  
 한국학의 장래 세미나 참석 (LW faculty club)  
 SeaFair 행사 참가(총인원 250명)  
 제15회 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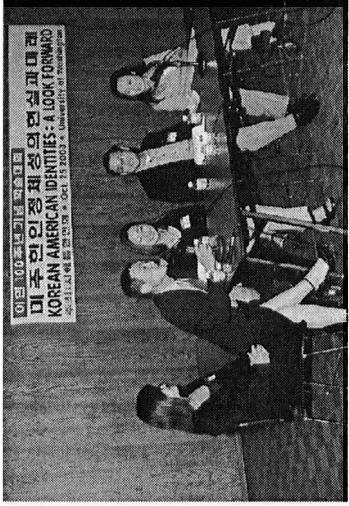
### 8월

한승수 주미대사 강연회 참석 (Columbia Tower 75층)  
 제 58회 8.15 광복절 경축식 거행  
 교포대상 한방 무료 진료 실시  
 재외동포 한인회 회장단 회의 참석(서울, 동포재단)  
 제 4회 단체장 회의 개최(장소:상공회의소)



### 9월

한인학교 협의회 기금모금행사 참석(Marriott Hotel)  
 워싱턴주 시민권자협회 제3회 Convention 참석  
 제 16차 임원회 개최  
 200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성원미달로 유회)  
 평화통일 자문위원 세계 대회 참석(서울)  
 제17차 임시임원회 개최  
 김병선 장로 사회장 거행



### 10월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예비모임  
 2003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타코마 대학 부인회 건물 신축 Open House 참석  
 서북미 연합회 주최 청소년 음악회 참석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LW/Kane Hall)  
 2004년도 회장단과 이사장 선출 선거위원회의  
 제18차 임원회 (아리랑의 밤 행사준비)

### 11월

연륜인 협회 창립총회 참석  
 국제 안보포럼 참석 (타코마 중앙장로 교회)  
 2004년도 (제 38대)회장단.이사장단, 후보등록마감  
 (등록자 없어 회칙에 의거 2주 연기기로 함)  
 그로서리협회 창립19주년 기념 경영인에 밤 참석  
 세탁협회의 총회 참석  
 축구협회총회 참석  
 2004년도 (제38대) 회장단과 이사장단 후보 등록 마감



### 12월

자유수호 연맹 회의 참석  
 아리랑의 밤 교민 행사  
 2003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 개최  
 2003년도 정기 총회 개최  
 신규 회장 사무 인계 인수

# 함명호 사진전...



약 력

함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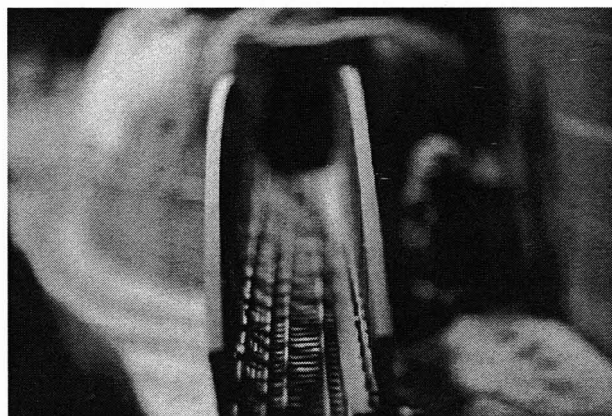
줄리 사진관 운영

시애틀-워싱턴 주 한인회 취재 부장

연락처 : 시애틀 206-363-3985

타코마 253-222-2698

10732, 5th Ave N.E Seattle WA 98125



## 이승훈 용자

Seattle Pacific

대표 이승훈 (Seung H Lee)

# 길이 보입니다.

믿을만한 용자 전문가 이승훈과 상의하십시오!!

### 주택 용자 및 재용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용자해 드립니다 ◀

- ▶ 관광 비자로 오신분
- ▶ 0% 다운, 정부용자 프로그램
- ▶ 세금 보고서, 직정확인서, 자금출처가 필요없는 No Income Verification
- ▶ 크레딧이 나쁜 경우, 영주권이 없는 경우



■ 직통전화 206)949-0801 ■ SEATTLE 206)969-3271  
 ■ FAX 425)455-1611 ■ TACOMA 253)569-7353

919 214th Ave NE #104 Bellevue, WA 98005

# 특별 이민 100주년



한국이민의 날 선포식

## Metropolitan King County Council PROCLAMATION

WHEREAS, on January 13, 1903, a group of 102 Korean immigrants landed in Honolulu, Hawaii with the arrival of 56 men, 21 women and 25 children to begin new lives in America; and

WHEREAS, seeking freedom from 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from their former homeland, these Korean immigrants worked hard to create better liv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for the others who followed them; and

WHEREAS, Korean American culture has now become an invaluable and inseparable part of our country's rich cultural fabric,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e nation's commercial, business, politics, science, religion and art; and

WHEREAS, Korean Americans own and operate more than 175,571 business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have gross sales of \$46 billion annually and employ 333,649 individuals; and

WHEREAS, there are now more than 2,600,000 Korean Americans in this country, in which King County is home to 50,000,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King County;

NOW, THEREFORE, we, the Metropolitan King County Council, proclaim January 13, 2003 to be

### KOREAN AMERICAN CENTENNIAL IMMIGRATION DAY

in King County, and we encourage all citizens to acknowledge the accomplishments of our Korean community and support the celebration of this important day.

DATED this thirteenth day of January, 2003.

*Frank Sullivan*  
Mayor, King County

*Paul van Riel*  
Council Vice Chair

*John Lambert*  
Council District 1

*David Park*  
Council District 2

*David L. ...*  
Council District 3

*John ...*  
Council District 4

*John ...*  
Council District 5

*Paul ...*  
Council District 6

*John ...*  
Council District 7

*John ...*  
Council District 8

*John ...*  
Council District 9

*John ...*  
Council District 10

*John ...*  
Council District 11

*John ...*  
Council District 12



# 오래오래 기억될 짧은 한해

시애틀한인회 부회장 장용석

지난 1월, 구성원의 다양함과 젊음으로, 앞서 봉사하신 선배님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또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우리 한인사회의 기대 속에 제 37대 임원단과 이사장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제 37대 한인회는 필연적으로 역사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할 사명을 처음부터 갖게 되었고, 마치 '백주년 표' 한인회처럼 여겨질 만큼 그 주제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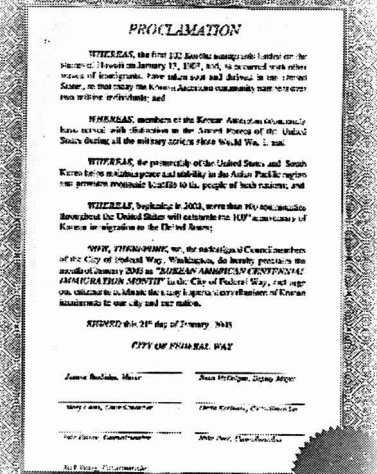
'2003년'이 주는 의미는 '이민 100주년'과 맞물려 이미 많은 일들이 예상된데다가 존경받는 한인원로의 사회장, 주시애틀총영사의 교체에 따른 환송과 환영행사, 한인으로써 미정부 고위직에 오른 관료의 워싱턴주 방문등으로 예년에는 경험하기 힘든 여러가지 사건들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전라북도 특산물 전시회 및 판매'는 재무상 적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한인회가 재정적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 수익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는 것과 단순히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국의 좋은 상품을 이곳에 소개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기간을 통해 함께 땀 흘리며 일한 임원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동지애가 생겼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떠나던 날 오후, 다시 큰 손님을 맞아 야했습니다.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을 위해 국립합창단이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몇몇 큰 행사

가 겹쳐 청중동원이 어려울 것을 우려했지만 행사장 한편에서 남몰래 드린 한인회장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2000석 이 넘는 UW Meary Hall이 우리 한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립합창단의 공연은 '역시 "국립"이구나' 할 만큼 황홀했습니다. 어떤 노신사는 이민 30년동안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음악을 듣는 것이 처음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로 임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돕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SEAFAR 행사 때였습니다. 백주년을 기념하는 무언가를 더하면서도 경비는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 다. 예년과 비슷한 행렬에 대북을 앞세워 의미를 더하려 했지만 고르지 않은 도로사정은 애써 만든 대북차량을 출발직전에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애틀다운타운을 활보한 우리대열은 퍼레이드를 마치고 모두 기쁜 모습이었습니 다. 그 어느 때보다 자원한 참가자가 많아 250벌의 전통의상이 처음으로 동이났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차세대 청년들이었



다는 것에 고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땀악별을 마다하고 일찍부터 나와 퍼레이드를 준비하느라 하루종일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마무리 하는 "미주 한인 정체성에 관한 학술대회"가 UW Kane Hall에서 10월에 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이미 연초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인회와

UW의 한인 학자들, 그리고 젊은 대학원 및 대학생들, 1.5세와 2세로 구성된 전문인 그룹들이 적극 동참해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어찌보면 딱딱한 주제, 재미없는 토론이 예상되는 대회였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1세와 2세들의 실제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뜨겁고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인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공공히 생각하게 하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 John's Collision Auto Body & Paint



## “헤매지 마세요”

한곳에서 바다, 돼인팅을 함께

### 425-771-8911

20500 Hwy 99, Lynnwood, WA 98036

**PIBANK**  
여러분의 만민은행

SBA, Commercial, Mortgage, 국제 업무 등 ...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준비된 전문인들이 불가능의 문턱을 없애드립니다

PIBANK Relationship Managers **과로부터** Young Kim, VP / Bonny Teornstra, SVP / Mi Young Kim, VP / Davis Heo, MGR / Joseph Kil, ANP

Seattle 본점 1155 N. 130th St. Suite 100 Seattle, WA 98133 Tel 206.306.7900  
Tacoma 지점 8608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Tel 253.984.7900

Member FDIC



# 프로-오토 Pro-Auto Sales

자동차를 사고자 할 때에는 프로-오토를 찾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주는 셰리 송이 함께 합니다.

**(206) 242-2647**

사우스 센터 뒤편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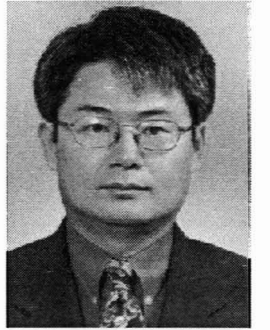
고객의 만족과 자동차의 품질을 100% 보증합니다.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단 48시간/60mile 이내)  
90일/3,000마일의 추가 Warranty를 드립니다.  
모든 가격은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보다 저렴합니다.  
신용 있는 카렉스(Carfax)사로부터 자동차의 모든 기록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자동차는 전문회사로부터 성능/안전 검사를 마쳤습니다.

Pro-Auto Sales Tel(206)242-2647 Fax(206)242-2650  
405 Baker Blvd. Seattle, WA 98188(사우스 센터 뒤편)

# 재미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회고하며... ..

김효정

(현 워싱턴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및 재미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실행위원장)



김효정 교수

지난 10월25일 시애틀워싱턴한인회는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계 미국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총 15명의 연사가 7가지의 소주제로 발표하였고, 연인원 200여명이라는 학술대회로서는 이래적으로 많은 교민이 참여하여 한인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심포지움의 발표 내용은 금년 말 책으로 출간되어 이 지역의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 무료 배포하고 또한 관심있는 교민들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심포지움을 개최한 한인회의 홍승주 회장 및 여러 임원과 이사, 발표자, 그리고 이를 외곽에서 지원한 워싱턴 대학의 한인 학생회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사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본 심포지움은 불가능하였다.

처음 학술대회를 입안할 때만 하여도, 우리 2세대 및 그 이후 세대들이 자신의 한인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가 한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임을, 따라서 이들의 자기정체성 확립에 우리 부모 또는 조부모세대들이 집단 사명감을 가져야함을, 작게는 워싱턴 소재 한인 공동체, 크게는 전미 한인 공동체에 화두 던짐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화두 던짐'이라는 목적의 이면에는 차세대들의 자기정체성 확립에 일조하고자 하는 막연한 바람 외 구체적 대안이 없음에 대한 자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본 행사를 준비하며 만난 여러 인사들, 특히 1.5세대 및 2세대 한인들과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렵잖으나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그 깨달음의 몇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한인의 자기 정체성 확립은 시간에 불변하는 미지의 본질적 특징을 찾고 이를 전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인 공동체의 구성원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상관하는 '타인들' - 그들의 부모 및 조부모들, 다른 2세대 한인들, 및 다른 인종적 기원을 지닌 미국인들 - 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수정 보완해가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1세대와는 다른 사회경제 문화적 조건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형성하는 한인상은, 1세대들이 생각하는 보다 한국적인 한인상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머나먼 장정에 나서는 2세대들에 대하여 우리 1세대들은 보다 "열린" 자세로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자녀들은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한인됨을 자각하고 있으며, 다른 미국인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한인의 자부심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심포지움은 한편 2세대들에 대한 미더움에서 부터 출발한 점이 없이 않았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하며 만난 많은 한인 2세대들은 나의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나는 이제 이들로 자부하며, 또한 이들로 겸손해졌다. 우리 한인 공동체의 다른 부모 세대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한인 공동체의 장래에 대한 희망찬 확신을 나눈다.

셋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들의 자기 정체성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실체화하는 데 있어 적지않은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심포지움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예상 밖으로 2세대들 간의 공동체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실체화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은 그 태반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어에 미숙한 대다수 2세대들의 한인 공동체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을 초래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한인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종교 및 사회 단체들 또한 한인 1세대를 중심으로 조직

되어, 2세대들 특히 성인이 된 2세대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공통 관심사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 정체성은 "타인들" (them) - 즉 다른 미국인들 - 과 상이한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 동일 집단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들 - 즉 다른 한인 2세대들 - 과의 "우리됨" (us)에 대한 연대 의식의 교차점에서 형성된다 하겠다. 전자의 조건은 차세대 한인들의 존재 환경이 그 충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됨"의 연대 의식은 그 구성원들을 씨줄과 날줄처럼 상호 엮어주는 공동체적 기반이 없는 한, 그 사회적 실체를 결여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하거나 무의미해질 소지가 높다 하겠다. 따라서, 2세대들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기반 형성은 우리 한인 사회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핵심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2세대들의, 2세대들에 의한, 그리고 2세대들을 위한 한인 공동체의 형성은, 물론 2세대 당사자들이 주축되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노력에 그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인 우리는 수수방관할 것인가? 내가 만난 많은 2세대들은, 그들 부모들 세대로 부터 배우고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한인 부모님들의 장점으로, "가이없는 자녀 사랑 및 희생"을 꼽기를 주저치 않았다. 이제, 우리의 자녀 사랑은 그가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한인 공동체 차원에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2세대들이 주최가 되는 공동체의 형성이 바로 "내" 자녀의 사회적 자아 실현에 필수 불가결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나는, 내가 속한 단체는, 이제 급격히 성인의 반열에 접어드는 우리 2세대 자녀들의 완성된 인격과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그들의 완성된 인격과 행복이 곧

나의 완성이기도 하기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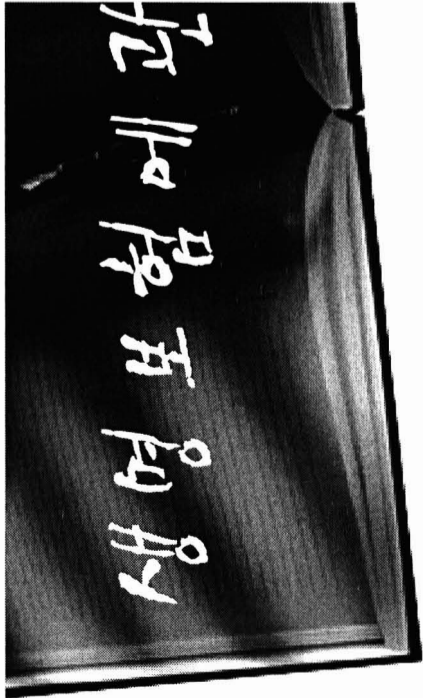
또한, 이것이, 우리의 조부모들이, 부모들이 지녀왔던, 나아가 우리 또한 지니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기에 ...

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사회학 박사  
현 워싱턴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실행위원장: 김효정 교수  
실행위원: 장용석, 도호정, 김승애, 홍찬, JANNETT 권



지난 여름 CNN이 보도한 '부자되기 7계명'에 '생명보험 갖기'도 그 중 하나임을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난 고객기문데 부자가 되기 위해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분은 보질 못했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성실한 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생명보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수시로 접하는 오해, 일급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1. 적금처럼 만기가 있지 않을까?

한국은 아이디어의 나라라고 여겨질 만큼 한가지 상품이라도 무척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빠른 변화를 추구해 가는 듯 합니다. 보험도 다양해서 신혼부부가 드는 잉꼬보험, 40대 남성을 겨냥한 암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있고, 그 상품들은 대부분 정해진 헷수를 납입하면 납입된 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약정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Whole Life Insurance와 기간이 정해진 Term Life Insurance로 대별이 됩니다. Whole Life는 다시 VUL, UL 등으로 구별되지만 일반적으로 '만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프레미엄에서 투자된 부분의 수익률이나 이월에 따라 조금 일찍 프레이엄을 안내도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Term Insurance는 정해진 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등)동안만 프레이엄을 납부하고 그 기간동안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년만 부으면 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 본 '소버자 고발'입니다. 첫번째 오해와 연관되는 데 투자형보험은 그 기간동안의 투자수익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Cash Value가 천차만별이므로 10년만 부어도 평생동안 보험이 살아 있을 수도

# 한 7가지 오해

## Prudential Financial 장 용 석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년이상을 부었는데도 프레이엄을 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원금은 돌려줘야 하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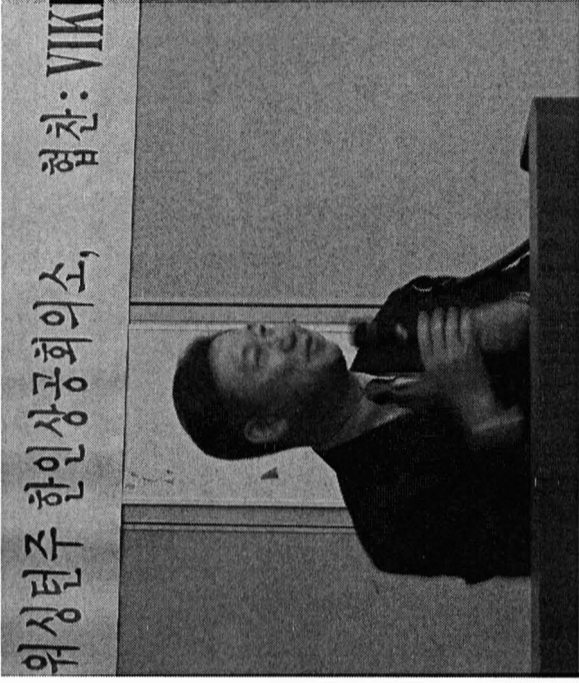
기간이 정해진 Term Life는 소멸성으로 인해 해약을 하든 돌려받을 돈이 전혀 없었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보다 비싼 Whole Life의 경우 가입후 몇 년후에 해약을 하려고 하면 돌려주는 돈이 아예 없거나 원금의 반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조기해약에 따른 Surrender Charge 때문인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가입후 10년, 또는 그 이상의 Surrender Charge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후에 그동안 가입한 원금정도의 Cash Value가 쌓였다면 10년 동안 사망시 수혜금을 보장받고도 원금을 회복한 것이니 성공한(?) 셈입니다.

4. '내 보험은 만능보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투자성 보험의 Cash Value를 이용해서 자녀의 학자금에도 보태고, 장차 있을 자녀의 결혼자금으로도 쓸 수 있겠습디만 만약 약 처음부터 학자금이나 특별한 집안 대소사를 목적으로 들은 보험이라면 아니 그러기 위해 보험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 까지, 또는 집안의 큰 일이 언제쯤 있을지를 고려해서 그때까지 예상되는 Cash Value가 얼마나 될 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보험료로 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5. "나는 Term을 선택한다, 고로 나는 현명하다!"

상대적으로 비싼 Whole Life를 선택하는 대신 Term Life를 선택하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Term Life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나이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나, 건강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시는 보험혜



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때가서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50만불' 백만불하는 사망수혜금이 2-30년 후에는 그만한 가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보다는 백만 낮습니다. 또한 지금 지불하는 프레이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역시 폭등이 될 것입니다. 물론 Cash Value가 쌓이는 만큼 정해진 사망보험금도 함께 증가하도록 해서 Inflation을 극복할 수 도 있습니다.

7. "생명보험을 들면 일찍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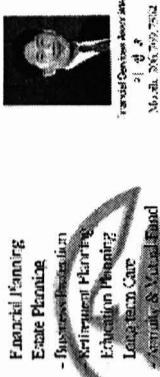
생명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은 필수적으로 선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생명보험을 갖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장수한다는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낮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채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제까지 어렵사리 일궈놓은 재정적 열매들을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태로 잃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보험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은 가족들을 재정적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는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 바우처럼 단단한 미래를 열어 가십시오

#### 재정서비스, 생명보험, 연금

고무현님은 미국 내 최대의 금융서비스 기업 중 하나입니다. 보험과 재물 서비스 역시 매우 훌륭한 단단한 구조임으로 보십시오.



Prudential Financial  
701 5th Avenue, Suite 1700 Seattle, WA 98101  
Tel: 206.447.1515

Prudential Financial  
701 5th Avenue, Suite 1700 Seattle, WA 98101  
Tel: 206.447.1515

Prudential Financial  
701 5th Avenue, Suite 1700 Seattle, WA 98101  
Tel: 206.447.1515



# 양자! 토와 자를 나눠 구분해

**주택용자:** 은행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할 때 이런 질문이 많이 받습니다. 중 하나가 용자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과 은행에 직접 가서 용자를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입니다.

은행에서는 ND 포인트에 용자를 해주니 브로커를 이용할 때 보다 은행을 직접 가서 용자 신청을 할 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용자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브로커를 통한다 하여도 은행에 직접 가실 때와 똑같은 조건과 용자 이자 비율의 조건으로 용자를 알맞게 선택, 용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이유는 용자 브로커는 은행의 일반 부분이 아닌 whole sale(홀세일)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객 용자 부분이 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님께서 직접 은행 거래를 하신다 하여도 (retail) 소매 이자율의 높음과 수수료는 부과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께서 직접 은행을 찾아 다닐 번거로움도 덜어 드립니다. 그러나 조심할 주의 점은 손님께서 신문 광고를 보시고 낮은 이자율 선전에 현혹되기 이전에 일단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히 듣는 말중 포인트는 용자 포인트(loan point)와 디스카운트 포인트(discount point)의 2가지로 구별 됩니다.

**첫째:** 용자 포인트는 용자 기관의 용자를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부과하는 수수료(loan fee)에 해당되고,

**둘째:**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모기지 이자를 낮추기 위하여 은행에 내는 비용입니다. 즉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큼 이자가 낮게 내려 가는 것입니다. 흔히 쓰는 집 모기지 용자 용어에서 용자 포인트와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구분하지 않고 주로 쓰는 용어는 용자 수수료(loan fee 또는 loan point)라고 합니다.

## 김승애

**용자를 위한 준비:**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 용자 신청에 많은 어려움 없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미리미리 크레딧을 체크 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교정을 해야 합니다. 카드의 신용한도가 초과 했는지 점검하여 초과된 카드 빚 잔액을 조금이라도 낮게 갚아야 합니다. 적어도 집 장만 4개월 전부터 미리 이런 사항을 발견하여 가능한 빠르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타인의 나쁜 크레딧이 나쁜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될 수도 있으니 크레딧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경우 빠르면 2주에서 3주의 행운의 교정기간이 가능하지만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여 크레딧 회사에 정정 요청 편지를 보내고 소요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 조사 결과 크레딧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조건으로 용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자 신청 시 자금의 출처가 확실해야 용자 신청에 어려움이 없고 또한 주택 구입에 다룬 페이먼트 클로싱용, 그리고 약 3개월치의 여분 페이먼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평균 3개월치의 잔고 액수 출처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크레딧 포인트가 높고 10% 이상 다룬 페이먼트를 할 경우 예 잔고 증명서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높은 이자 비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2년간의 세금보고서입니다.

신청 절차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나 보통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를 적게 보고하여 수입 증명을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특별 프로그램 'stated income' 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입 증명서 없이 본인의 크레딧 점수와 용자 신청액수에 따라 용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

면 됩니다.

## 잘못된 크레딧 문제

직접 편지 내용을 설명하여 조사 요청해야 가장 빠른 효과를 본다. 어떤 분들은 직접 이런 경험도 많이 했다고 가끔씩 신문 광고에 나오는 크레딧 교정 회사에 현혹 되지 말고 크레딧 교정에는 본인이 직접 해명 편지를 보내어 조사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또한 본인의 크레딧을 망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기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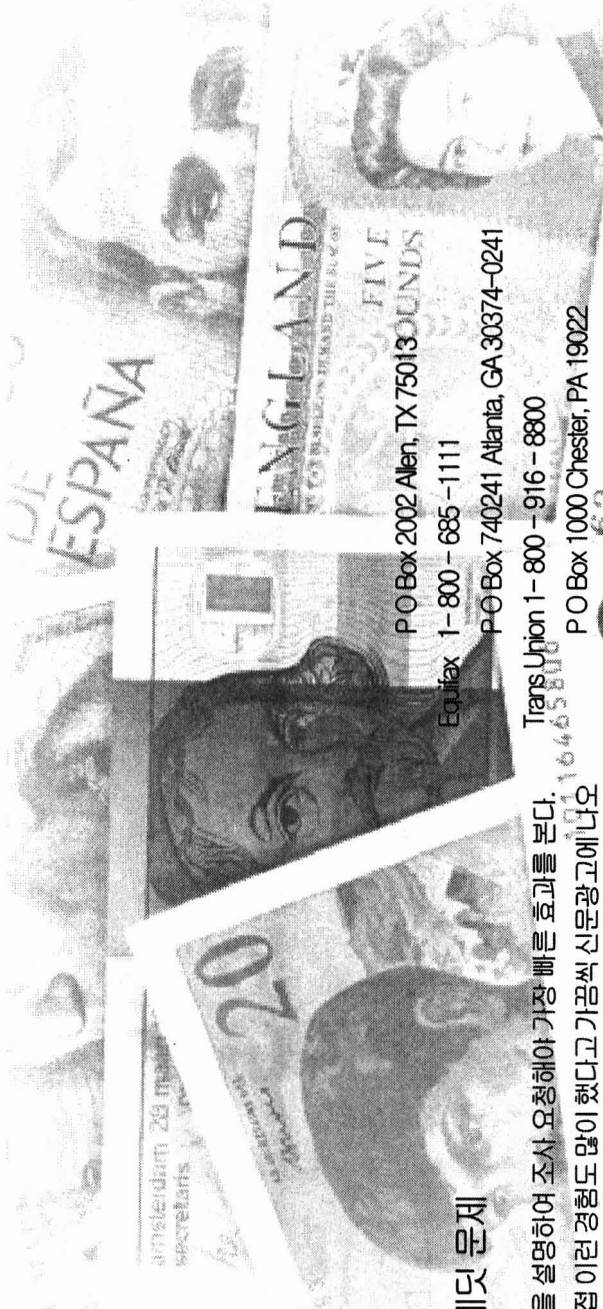
크레딧 교정 회사의 경우 대부분 합법적으로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크레딧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많은 경우 부과 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딧 교정 방법 중 가장 현명한 방법은 크레딧 회사로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하여 잘못된 내용을 체크 하여 교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크레딧 회사에서는 2주 또는 3주 안으로 문제점의 회사에 점검하여 크레딧 요청 손님에게 새로운 크레딧 리포트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리포트하여 보내준다.

## 크레딧 관리 요령과 크레딧 점수를 높이는 방법

1. 먼저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절대적으로 제때 납부한다.
2. 크레딧 카드는 오래 유지 할수록 더욱 좋다.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라도 계속 2개월도 유지한다.
3. 크레딧 카드가 하나도 없는 분은 오히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볼 때 위험 고객으로 볼 수 있다.
4. 크레딧 리포트는 1년에 두 번씩 또는 1년에 한번씩 체크해 잘못된 문제 내용을 즉시 교정한다.
5. 크레딧 카드 빛은 매달 이지만 내지 말고 액수가 아주 작게 있을 경우 전체의 액수를 한꺼번에 페이먼트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6. 크레딧 교정 회사는 절대 이용하지 않 것. 그러나 채무 빚으로 꼭 돈을 받고자 할 경우 비영리로 운영되는 크레딧 카운슬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평가기관 연락처)

Experian 1-800-397-3742



P.O. Box 2002 Allen, TX 75013  
 Equifax 1-800-685-1111  
 P.O. Box 740241 Atlanta, GA 30374-0241  
 Trans Union 1-800-916-8800  
 P.O. Box 1000 Chester, PA 19022

**상업용자:** 나의 전문성을 지부하는 것중 가장 비중이 큰 상업용 용자 설명은 공간 문제로 다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업용 용자 문의 시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써니킴 종합용자

## 용자는 전문성을 안박히 갖춘 용자 전문 프로에게!

다년간 은행 커머셜 용자와 팀 상자를 직접 맡아왔던 써니킴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용자 과정을 쉽게 풀어 드리는 써니킴에게 문의하십시오. 신속, 정확,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택용자 및 제용자

- ▶ 세금 보고서, 직장 확인서, 자금 출처가 필요 없는 No Income Verification
- ▶ 크레딧이 나쁜 경우, 영수권이 없는 경우
- ▶ Cash Out Loan
- ▶ Home Equity Lo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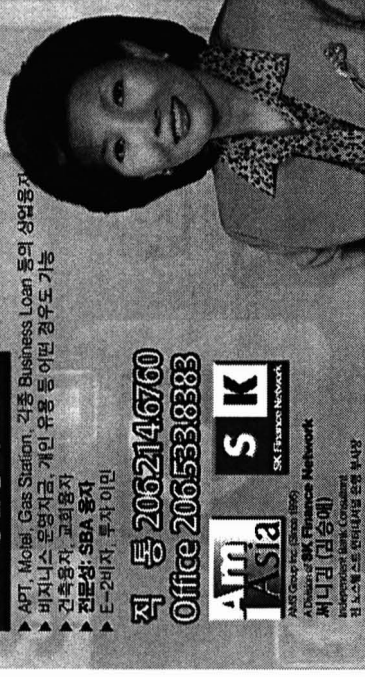
### 상업용자

- ▶ APT, Motel, Gas Station, 각종 Business Loan 등의 상업용자
- ▶ 비즈니스 운영자금, 개인 유동 등 어떤 경우든 가능
- ▶ 건축용자, 교외용자
- ▶ 전문상, SBA 용자
- ▶ E-레저, 후자 이민

직 통 206.214.6760  
 Office 206.533.8383



Asia Group Inc. (Stock #899)  
 Atlanta, GA Finance Network  
**써니킴 (김승애)**  
 International Bank Consultant  
 10050 1st Avenue NE, Suite 1018



# 요즘 어때세요

부동산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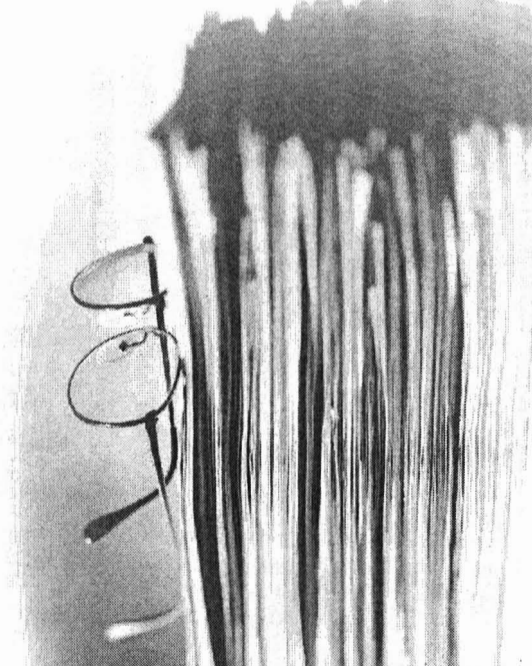
James Bang

경기에 민감한 직업이든 아니든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오  
고 물어보는 말이 요즘 경기는 어때세요? 일게다. 별반 다를리도 없  
으면 안오늘의 경기와 또 앞으로의 경기를 말하고 점치고 결국엔 허  
를 끝낼 차면서 정부 정책까지 썩고 나면 요즘 경기는 땅을 치고 만  
다.  
물론 어떤 사람은 경기도 경기지만 자신의 계획과 미래 그리고 성공  
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분들에게 나는 아  
낌없는 존경을 보낸다. 성공은 결국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쓰이는 말이고, 나는 목표를 갖고 자신을 헌신하는 분에게 커머셜  
부동산 분야에 상담자역을 하는 행복한 사람이고 싶다.

하여 요즘 경기는 날세와도 같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도 공공  
한게 그날 일기지만 정작 안다스 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달라질게  
없다. 비젠타는 낙엽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다 해도 커피맛만 더  
할 뿐이니 말이다. 세운 목표와 책임이 있는 이는 굶은 날에도 이랑  
곳하지 않는다. 흠뻑 비를 맞으며 공을 치는 사람들처럼 열정과 행  
동으로 자신을 키우고 다듬어 나가니 그 사람들에게 비 오는 날의 게  
임은 또 다른 경험을 주는 것이다. 또 거운 여름 피악별 아래에서 얼  
굴에 소금이 묻어날 때에 그들은 비 오는 날의 게임을 생각하며 목마  
른 입을 축일게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당신의 요즘 경기는 어때한가? 요즘 미국 경기는 좀처럼 빠른 회복  
은 기대하기 어렵다고들 하고 워싱턴주의 경기는 더욱 더디게 회복  
중이라고 하지않는가? 맞다 2003년 연말의 신문들이 전하는 바이  
니 틀리다고 할 도리가 없다. 자 이제부터가 성공하는 사람과 그할  
지 않은 사람의 선택이다. 부동산은 소유기간이 평균 7년이다. 그럼  
당신은 4년에서 10년은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또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쯤되면 요즘 경기를 모르고  
서는 쉬이 용단을 내리기 어려우리다.  
자신이 갖은 신념과 목표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요즘 나의 경기를 만  
들어야 한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경기는 예전보다 좋  
은 요즘 경기는 없다. 나 스스로 경기를 만들고 헤쳐나가는 것만이  
어제보다 좋은 발전하고 성취해가는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하고 셀러를 만나면 높게 값을 계산하고 바이  
어는 무작정 낮게 값을 치는 통에 애를 많이 먹었다. 그때 존경하  
는 선생님께서 내게 하신 말이다. 너무도 평범하기만 한 말인데 예  
나 지금이나 내게는 큰 힘이 되는 말이 있다.  
"전쟁 중에도 애는 낳는다"



Skyline Properties, Inc 206-778-7175

# 종신 운동으로 골프가 최고

KADDYSHACK GOLF CENTER / SEATTLE 한인회 체육부장 이 덕 남 PRO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어차  
피 평생 동안 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권해하고 싶다.

골프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치성 운동이라는 본국에서의 인  
식 때문에 차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골  
프만큼 저렴한 운동도 흔치 않다. 미국에서 평균 1회 라운드에  
드는 시간은 5시간, 경비는 30/40불 정도가 든다. 흔히 할 수 있  
는 볼링과 비교해 보더라도, 5시간 소요되는 시간에 30불 정도  
의 경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렴한 가격에 해당된다. 골프 클  
럽의 가격도 300불에서 2000불까지 다양하지만, 500불에서 600  
불 정도면 아주 훌륭한 클럽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정도 가격이 부  
담된다면 증고 클럽들도 가능하며, 운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이 없다.

골프 클럽을 처음 잡는 경우라면, 한두달 정도의 기본자세가 꼭 필  
요하다. 무슨 운동이든 기본자세가 중요하지만, 특히 골프는 시  
작이 매우 중요하다. 주변 곳곳에 정식 PGA 프로들이 장비 구입  
에서부터 기본자세 지도까지 훌륭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 중요한 시적을 망쳐 버리면 중간에 잘해보려고 시도할 때 또  
후회하게 되고 이미 몸에 익혀진 자세를 바꾸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니다. 주변의 권고와 조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PRO를  
선택하여, 새해부터는 종신토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평생운동인 골  
프를 한번 시작해볼까 어떠냐고 싶다.

이덕남 프로 전화 : 206-498-4840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열매  
)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라는 구절  
이 있다. 이 말을 간단히 바꾸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  
을 할 때만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는 말일 것이다.

많은 스포츠 경기종목 가운데 종신토록 할 수 있는 운동은 골프  
밖에 없을 것 같다. 골프는 걸을 수 있고 손만 있으면 가능한 운  
동이다. 우리는 가끔 신문지 상에서 80이 된 노인이 훌륭한 소식  
을 접하기도 한다. 골프를 직업으로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 이취임식



제 37대 회장으로 인사를 하는 홍승주 신임회장과 2003년도 임광희 이사장



#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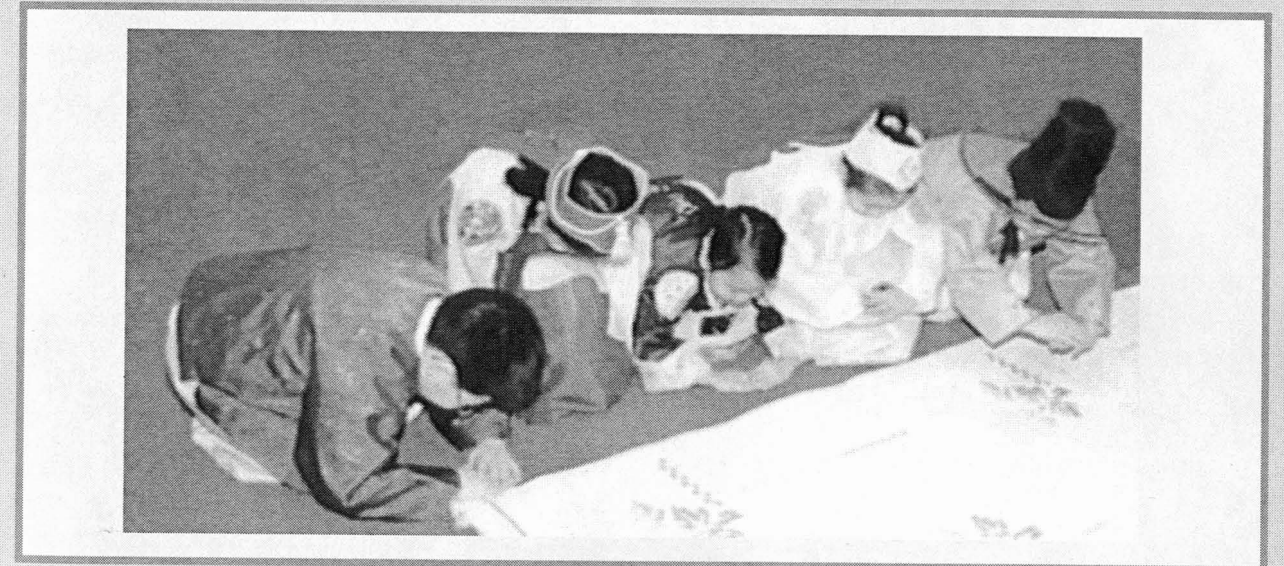


2003년 3.1절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떠나신 고 김병섭 장로님



## 구정 및 일반행사들

시애틀, 벨뷰 통합한글 학교 학생들 설날을 맞이하여



# 학술심포지움

시애틀 한인회는 특별히 우리의 1.5세대와 2세대를 위하여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UW에서 심포지움을 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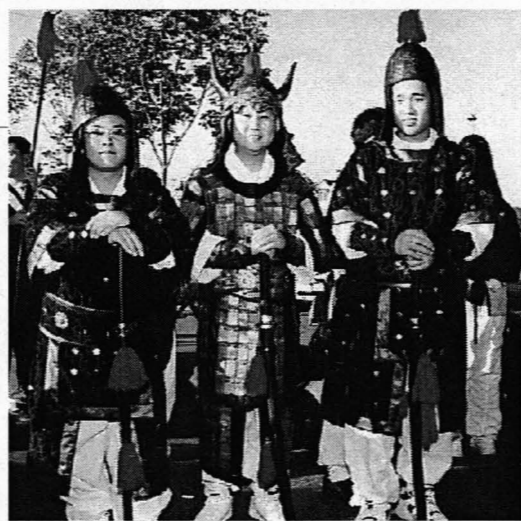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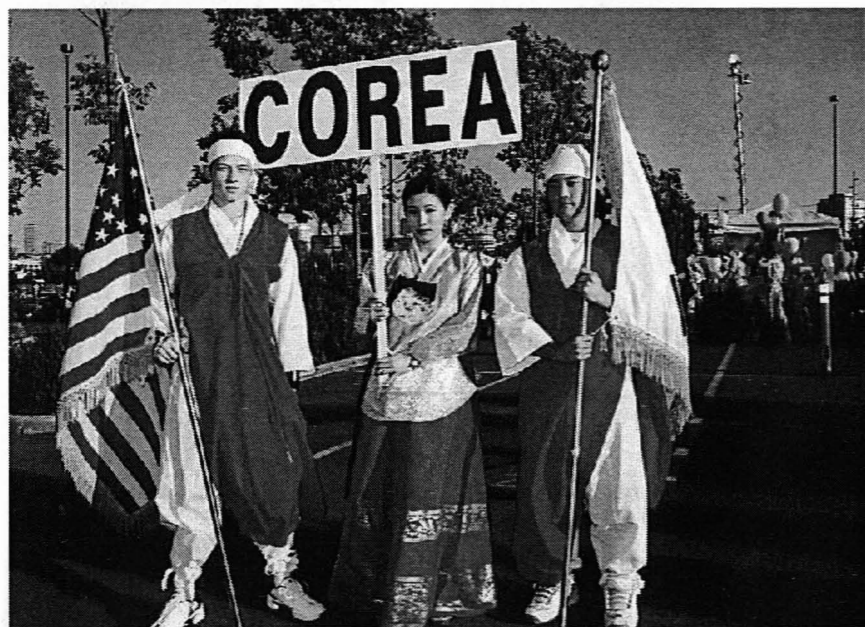
# 특산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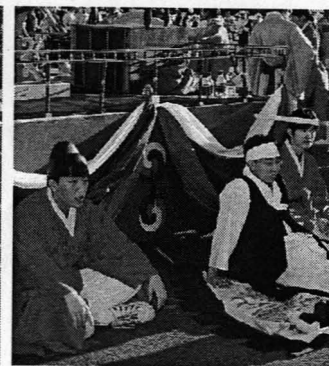
# SeaFair



# 보람이 함께한... SeaFair



# SeaFair



# 100주년 음악



# 100주년 음악



세계정상의화음을자랑하는한국국립합창단이이곳UW미니홀에서많은한인을모시고우리의 가곡과 율동이 함께한 합창곡으로 정상의 실력을 과시했다

# 골프대회

A (2) 2003년 6월 13일 (금요일)

서 북 미 / 로

## 시상품 한인회에 기증 "흐뭇"

### 적은 참가인원 불구 경매 부처 3천9백달러 흑자

#### 시애틀한인회 골프대회

한인회관 건립기금 마련 및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애틀 한인회가 주최한 골프대회가 지난 6일(목) 12시부터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스쇼 골프장에서 샷건 방식으로 치러졌다. 경기가 평일에 열린 탓에 참가인원 144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하여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경기 후 신성식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 대부분이 상품을 한인회에 기증하여 경매에 부처 오히려 3천 9백불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는 흐뭇한 광경이 연출됐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애틀 한인회 골프대회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P : 이명호, LD : 그레이스 김  
 행운상 : 정낙규, 형제가족 상 : 백명호, 이경호, 부자가  
 족상 : 김동구, 김홍찬, 부부 가족상 : 최옥희, 최정학)

- <A조> 그로스 챔피언 : 유진훈, 챔피언 : 권형철, 1등 : 이영근, 2등 : 온영철
- <B조> 그랜드챔피언 : 김성수, 챔피언 : 서광호, 1등 : 한광희, 2등 : 유재학
- 여자 그로스 : 백명호, 챔피언 : 최옥희, 1등 : 종 데몬, 2등 : 박여옥
- <남자 A조> KP : 황인태, LD : 감신모
- B조 : KP 문성민, LD : 김범집
- <여자>



## 화보

# 김병섭장로님장례식



이제 못다하신 일들 후배에게 남겨 두시고 고이 잠드소서



## '조용한빛' 은사리지고

묵광 김병섭 장로님 영전예오정방 (시인/오레곤 문학회장)

사모님 7주기와  
 당신 생일 맞는다고  
 가까운 이웃 친지  
 모두모두 불러 놓고  
 만날 날  
 열흘 앞에 두고  
 황망히 가시었네

회고록 출판한다  
 동분서주 하시더니  
 말간이 눈앞인데

채 못보고 떠나셨네  
 나 본듯  
 읽어보라시고  
 조영히 가시었네

세상이 어지러워  
 더 머물 수 없으셨나  
 가신 님 뵈고 싶어  
 발길 재촉 하기었나  
 아무리  
 급하셨더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고쳐서 생각하니  
 좋은 곳엘 가셨네요  
 눈물과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가셨네요  
 세상 일  
 모두 잊으시고  
 부디 고이 잠드소서

# 2003년도 회비 및 찬조금 납입 현황

## 한인회 회비 납부자

\$11,300 김익진
\$10,000 홍승주
\$3,000 주시애틀 총영사관
\$2,000 김충모
\$1,800 임광희
\$1,330 이영조
\$1,000 장진식 시애틀연합장로교회
\$600 신호범
주봉익, 민영기, 장용석, 류창영, 서북미한인은행
\$500 My Service Mind, Van Wild
\$400 김승애
\$350 ROTC동지회, 라디오한국, 이동립
\$300 *납부자 명단 *
윤부원, 홍찬해, 민학균, 안경숙, 이필영, 주대철, 장태수, 박준우
, 이학보, 문성민, 이병구, 홍 찬, 유대림, 김준배, 정재원, 권경락
, 장성완, 김상민, 시애틀중앙선교회, 남대문식품, Pacific
Union Bank
, 세탁협회, 함재영, 박요섭, 평화통일자문회의, 이희정, 윤주남
김기현, 무 명
\$250 오계희
\$220 이현숙
\$200*납부자 명단 **납부자 명단 *
타코마한인회, 지은정, 양용관, 김기홍, 장태근, 이찬주, 송태호
, 강석동, 조경희, 우시흥, 강세홍, 유의진, 해병전우회, 조성욱
, Sajo America, 김영민, 박약국, 이재홍, John's Auto Body,

Moorim USA
,\$150*납부자 명단 *
김 준, University 꽃집, Anthony H. Bang, Keun J. Lee, 박태수
, 박재동, 장현식, 이성수, KATRA, 미리내식당, 박영민, 김성호
, 심상연, 김순아, 김정부, 강영선, 축구협회
\$120*납부자 명단 *
김준철, 이정태, John H. Park, 상공회의소, Elicia O Kim
최순자, Sushi Moto, Kathy Park
납부자 명단* \$100
김창환, 채상일, Brian Kim, 황인태, 이종찬, 이영조, 오준걸
, 함영호, 동원모, 유철웅, 김형길, Carolyn Keun
, John C. Kwak, 박윤모, 건국대동문회, 송면식, 임영철, 김 준
, 박태호, 박윤모, 김진희, 윤광남, 이승영, 한상국, 이광술
, 김교선, 송춘우, 영도성, 이혜자, 이동훈, Mark Choi
, 늘푸른 컨설팅, 이주영, Young Ocean 김종구, 박영희
, 임 경, Paul Lim, 강희열, 신동철, 이종현, 심사라, 김간남
, 변인복, 배정학, 김성길, 황치만, 신무상, 박종욱, 윤영복
, 김상봉, Overnight Printin, 강동언, KAGRO, 에드먼드축구회
시애틀축구회, 웨더럴웨이 축구회, 대한체육회
총액 \$ 64,192.20

## 일반 회비

Sylvia Stephen JR. Maj Johivc Lee, 장현희, 문유기, 정연식,
이명자, 김인성, 강옥희, 윤영옥, 천계원, Pasty O Connel,
Chwle Hyoun Kim, 라승인, 조규영, Daniel Y. Song, 정덕실,
함학기, Erin D. Seeger, 이민복, 김은규, 전세영, 김태구,
김길수, 임상현, 이용철, 김두욱, 장 진, 손희섭, 송덕영,
Chnes Byro, 임종원, 가희미왕신, 노기웅, 장철호, 심혜성,
신유선, 홍정순, 강연숙, 오미정, 한정열, 노정식, 민성욱,
Kyu J. Lee, 김 철, 박추순, 임영실, 이귀모, 박순실,
사나미용실, 최정애, 이재균, 여경호, 변종혜, 장부용, 홍낙순,
이석용, 이청학, 문성주, 김종린, 오수당, 박재선, 서병창,
김형철, 박귀선, Cynthia Chang, 정진환, 김희철, 문희동,
이상량, 이동근, 조규론, 김승진, 박정숙, 이금제, 삼보설령탕,
안분례, 박복순, 심양선, 한송월, 한동호, 오순기, 안현준,
손선근, 황용준, 이상철, 이종남, 최강수, 엄성윤, 차충영,
홍재균, 고광호, 조용기, Peter Song, John J. Yae, 김성진,
강성국, 박철우, 김경천, 기 무, 이춘향, 황기현, 윤병채,
득고훈, 김재혁, 김철현, 곽종세, 이재희, 한정열, 이덕재,
Christina S. Lee, Paul D. Han, Myoung H. Beck, 이형순, 백귀진,
김필중, 곽영준, 강태수, 조은순, 신경철, 김 웅, 창현성,
박재영, 박희영, 서영민, 조연상, 김태강, 배병민, 박희영,
손동학, 이석보, 최병택, 이병호, 김양곤, 강태원, 허남일,
안득찬, 최영진, 조수호, 이종식, 양호경, 김향림,
무 명(다수)
이상 총액 \$64,192.20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1200 South Angleo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8  
Telephone : (206)767-8071 . FAX : (206)767-2784

## 2003년도 수재 의연금 명단

Cedar Building Svc Inc	\$100
홍승주	\$500
ROTC 동지회	\$500
라이온스 Club	\$500
김승애	\$100
김준배	\$100
윤영복	\$100
고광호	\$100
무명	\$ 5
Jaeman Park	\$300
Mom's Teriyaki	\$ 50
Wok Kim	\$100
중동동문회	\$300
온누리교회	\$100
강원인회	\$400
경기여고동문회	\$200
씨애틀권사회 셀렘한인교회	\$300
(전병국목사)	\$450
기독실업인회	\$200
Korean Glory Church	\$100
곽종세	\$200
열방교회	\$251
Ann Young Ho	\$ 20
신석란	\$100
Kena 1 Korean Church (AK)	\$170
X세탁협회	\$200
모금(김승애)	\$48.34
Sun Golf 회원일동	\$200
통합한국학교 학부모회	\$568
씨애틀 통합노인회일동	\$1,005
무명	\$ 50
안득찬	\$ 50
교차로신문사	\$500
새소망교회 오레곤	\$500
워싱턴여성부동산	\$500
벨뷰통합한인학교	\$944.50
	\$195.16
총합계:	\$10,007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1200 South Angleo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8  
Telephone : (206)767-8071 . FAX : (206)767-2784

## 한인회보 책을 내기까지

### 지나온 일년의 시간들..

다른 해에 비추어 더 많아진 행사들..  
그렇다 올해가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미 우리는 이곳에 정착을 한지도 한세기가 흘렀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한인회 사무총장으로서 일년은 아주 바쁘게 지난 해였습니다. 홍승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용석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대소사를 잘 치뤘습니다. 이제 37대 임원과 업무를 맡아 주셨던 모든 여러분들의 임기 동안에 애써 주셨던 일들을 뒤로 한 채 제38대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더 나은 한인회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여기 우리 37대 시애틀한인회가 이루어낸 갖가지 행사와 활동을 지면으로 묶어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한인회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인회의 사진기록을 맡아오신 함명호 부장과, 아울러 회보를 편집하여 주신 이성국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축원 합니다.

편집인 김승애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1200 South Angleo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8  
Telephone : (206)767-8071 . FAX : (206)767-2784

**Holiday Inn Express**  
EXPRESS  
HOTEL & SUITES

새로 지은 깨끗하고 안락한 호텔  
(2003년 11월 완공)

# Holiday Inn Express Hotel

이 광고를 보시고  
전화예약하시면  
**15%**  
할인해 드립니다.

- ★ 102개의 객실
- ★ 24시간 실내 수영장과 Hot Tub
- ★ 무료 아침식사
- ★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10분거리

14115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한국어 예약 (206)365-7777 이정섭 (엘빈 리)**

## 주봉익 내과 전문의

SAMUEL CHU, M.D.

**진료 내과** :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알러지, 관절염,  
내시경, 폐기능검사, 심전도

**각목 소아과** : 신체검사, 예방접종, 천식, 알러지

**주봉익 Samuel Chu, M.D.**  
내과·소아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뉴욕 주립대학병원 소아과 수료  
미네소타 주립대 부속병원 내과 수료  
미네소타 주립대학병원 영내과 수료  
뉴욕에서 소아과 개업 '87-90

**최운희 Yoon Hee Choi, M.D.**  
소아과 전문의  
고려대학교 의대 졸업  
NY Medical College 소아과 수료

**(425)712-0101**  
23830 Highway 99, Suite B-120  
Edmonds, WA 98026

진료시간  
월, 화, 수, 금 9:00am - 5:30pm  
토요일 9:00am - 1:00pm  
목, 일요일 휴진

32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조리합니다



# 옛을

즉석 함흥냉면  
평양냉면  
한식일채 캐더링

206.365.6679  
15200 Aurora Ave. N. Shoreline, WA 98133

## 커튼 액자

425-821-1331  
206-669-4922  
조승제, 조주성  
공간 인테리어  
& Frame up, Blind down  
12091 124th Ave. NE, Kirkland,  
WA 98034




## 아모레 화장품

Amore Cosmetics  
SHISEIDO

린우드 아모레  
425-741-9515  
17424 Hwy 99 #205 Lynnwood, WA 98037

## 팔도 건강센터

황성주 생식, 녹용, 보약, 비타민, 영양제, 자연 건강식품 일절, 통기차, 귀국 선물용영양제,  
발기부전 개선 및 정력 증강제, 기타 건강식품



**대표 홍경진**

17424 Hwy 99 #101  
Lynnwood, WA 98036  
(린우드 팔도 월드 내)  
T. (425) 787-5656  
Cell (206) 595-4485

전통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 호술이식당



**최고의 맛!**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셔서 전통 순두부 맛을 즐기십시오

**타코마**  
253-584-4572  
8501 S.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에드몬드**  
425-775-8196  
23830 Hwy 99 #1114 Edmonds, WA 98026

**Mr. Rak**  
Korean Restaurant

425-673-9292  
19226 Hwy. 99  
Lynnwood, WA 98036

**피용실**  
Hair Design • Skin Care • Nail Care  
M.D. Formulations

Hasnah Cho  
Hair Stylist

Cham Kirkland  
Esthetician

(425) 649-0929  
1420-56th Ave NE • Bellevue, WA 98007

유능하고 성실한  
**데이빗 김 부동산**  
당신의 부동산 격이 높아집니다

커머셀 데이빗 김  
(206) 235-3651

## EDICOS THE BEAUTY PILL

Edicos는 천연 해조류에서 추출한 신소재 "VNP"로 폴리페놀을 비롯한 표준화된 생리 활성물질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혈액 기능 활성화 물질군'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 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기능 및 혈액순환, 혈류개선 효과로 인한 피부 노화방지등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 천연신약 후보 물질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기능성 소재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체의 혈행을 맑게 해줌으로써 외적으로 피부 상태를 정화시켜 줍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피부는 인체내의 혈행이 맑지 않으면 효능이 없습니다

### 혈액정화작용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산화물질을 막는 성분을 높여줌으로써 혈액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맑고, 깨끗한 순수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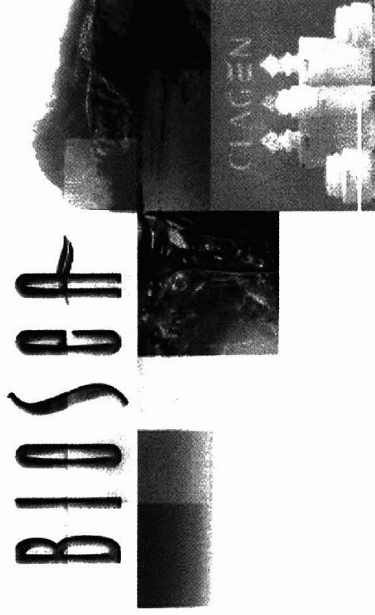
### 혈류개선작용

혈관은 나이가 들에 따라 혈액 내 지방성분과 산화물질에 의해 딱딱해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데 이를 정상적 혈관으로 회복시키고 강화시켜 줍니다

### 혈관보호작용

혈액의 순환을 저해하는 혈전과 노폐물을 잘게 부수고, 덩어리지는 경향까지 막아줌으로써 정상적 혈류순환으로 인체 전반적 생리기능에 활력을 찾아 줍니다

NATURAL BEAUTY  
through HEALTHIER SKIN



Call for information on our complete line of products @ **1.877.334.2671** or visit online store @ [www.biosea.com](http://www.biosea.com) Seattle, Washington, USA

**COLDWELL  
BANKER**

BAIN  
ASSOCIATES

벨뷰/레드몬드/머서아일랜드/커글랜드/이사콰/머다이나/우든빌/바덴

# 실적에서 경험에서 가장 각실한 부동산 전문인!



**벨뷰와 이스트 지역  
TOP #1 Selling Agent**

International President's Elite  
Relocation Specialist  
Marketing Specialist

# 조앤송

Joan Song

## 주택 전문

직통 (425)830-3359

직통 (425)444-5678

Web Site: [www.joansong.com](http://www.joansong.com)

E-Mail : [Joan@Joansong.com](mailto:Joan@Joansong.com)

150 Bellevue Way S.E, Bellevue, WA 98004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사시고 파실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